

“손 자주 씻고 개인위생 철저히”

제주도 '신종플루 대응 행동요령' 발표...감염자 대부분 완치

최근 제주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신종플루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개인위생 관리 등 예방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플루 대응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동요령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도민과 임산부, 학원·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과 장소별로 구분했다.

제주도는 신종플루로 감염된 대부분 환자들은 완치됐으며,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고 백신도 원활히 공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연휴 기간 신종플루 환자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도민' 행동요령

▲ 외출 후 귀가 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



△추석연휴 신종플루 대응 유관기관 및 단체 특별대책회의가 9월 24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킨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이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을 미리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의 접촉을 피한다.

▲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용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한

다.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혹은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

▲ 시설 관계자들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매일 점검해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시설 관계자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출입자 및 시설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봉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운영난푸드마켓에 온정 릴레이

기업체·공무원·개인기부행렬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난에 허덕이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부천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랑을 채우고 있다.

신방미곡 오영봉 대표가 한 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라며 10kg 쌀 50포를 9월 25일 기탁한데 이어 9월 28일에는 영락교회에서 10kg 쌀 100포를 기탁했다.

다음날에는 KT제주마케팅 단에서 현금 200만원을, 서귀포시농협에서 20kg 쌀 20포를 푸드마켓에 전달했다.

공무원과 언론사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제주시청은 20kg 쌀 28포를, 제주 MBC는 20kg 쌀 5포를 기증했다.

푸드마켓 운영위원장인 임문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현금 200만원을 선뜻 내렸으며, 농협중앙회 제주도청지점에서는 직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정우식품에서는 비누 6510상자(3개 들이)를, 한라라이온스클럽은 20kg 쌀 6포를 기탁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공시는 매월 생수와 감귤주스를, (주)금강축산유통과 기본 좋은정육마트는 육류를, 명도암관광휴양목장은 유기농채소류를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푸드마켓이 운영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개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이명구씨는 10kg 쌀 100포를, 김정수씨와 홍원우씨는 각각 채소류 10kg와 20kg을, 고



용범씨는 3.5kg 쌀 3포와 김 1상자를, 이은덕씨는 통조림류 20개를, 국수마당 대표 이순옥씨는 30만원을 푸드마켓에 보냈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장기요양급여 처당 지급 시설 탐방위미에텐요양원	
사회복지소식	4·5면
시각장애인 사이클로 새삼 · 소식마당 장애인 수익모델 '감귤정관'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특집	7면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 전문 ★의료기 전문
★체육시설 전문업체 ★체육행사용품

월드컵상사



代表 金 銅 哲

Tel. 724-1616, 753-9864
Fax. 7228945
Mobile. 019-546-1616

이달부터 장기요양급여 차등 지급

서비스 질 향상 노력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9월 15일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사항 중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한 기구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9명으

로 구성됐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원과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는 기관은 급여비용을 5~30% 감산한다.

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10% 감산한다.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는

장기요양요원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이달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 근무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여성들 "추석명절 설레요"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9월 24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35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한국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주여성들은 큰절하기 등 예절교육과 한복입기, 고추장 만들기 등을 배우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48억7200만원 지원

제주시, 4452가구에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4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가정 4452가구를 발굴, 모두 48억7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역을 보면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통해 1600가구에 25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병,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250가

구에는 3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가 있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기준은 약간 넘어 서지만 생활이 어려운 2510가구를 찾아내 5월에서 9월까지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소득은 적지만 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등 재산이 있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92가구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통해 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확대 '實效'

올해 75개 업체 135명 지원...32개 업체 46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업체가 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76개 업체 135명에 대해 1억522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개 업체 79명에 비해 32개 업체(72.7%), 46명(48.9%)이 증가한 것.

아파트관리사무소 28곳에 55명의 노인 일자리가 늘었으며, 주유소 및 충전소 18곳 29

명, 관광시설물 관리·주차 등 8곳 15명, 생산업체 11곳 14명 등의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내 영세사업체로, 월 48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3일 이상 상시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20만원이며, 업체당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뒤 2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우수사례

행안부경제살리기 주요시책 지자체 합동평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 상반기 경제살리기 주요시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중 검정고시 준비생 혹은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등이다. 1인당 학원비 3개월분인 52만원(학원비 45만원, 교재비 7만

원)을 지원하며, 8월말 현재 23명이 지원을 받았다.

제주도는 중·고등학교 과정 학업포기자에게 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의 꿈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무료 방제

'일석이조'

일자리 제공에 탈수급유도

제주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살균·살충 등 무료 방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방제서비스는 제주수능음지역자활센터내 자활사업 참여자 8명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방문, 분기에 1회 바퀴벌레, 쥐 등에 대한 해충방제와 정화조 및 실내 미세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3분기부터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살균소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2회에 걸쳐 방제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아 무료 방제서비스를 확대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전염병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방제 전문 지식을 습득해 독자적으로 사회 일자리형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 수급유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음에 따라 방제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기초노령연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한 기초노령연금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예산집행, 교육·홍보, 수급자 관리, 소득·재산조사 적정성 등 5개 분야다.

제주도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와 함께 장려상에 선

정됐다.

한편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8월말 현재 4만 38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722명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6만6028명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수급자 관리와 부당 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660,000	66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10,000	410,000
복지사업후원	1,680,000	740,4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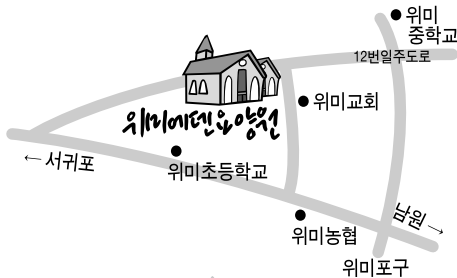
시설탐방

(23) 위미에덴요양원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

2005년 10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자리잡은 위미에덴요양원(원장 김명환), 초가를 날씨치고는 따스한 바람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오전, 별 좋은 날 빨래가 길게 늘어선 채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이 위미에덴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남은 여생 동반자역할...가치있고 보람커”

위미에덴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영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영양과 치료·보호를 제공,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입소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안식처를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위미에덴요양원에는 9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 2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 5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위미에덴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여가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술치료 프로그램.

특히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부설 여성장애인여가문화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장애인여가문화지원센터가 양성해 파견한 여성 장애인 전문강사를 통해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사포분할그림 표현하기를 운영하고 있다.

사포분할그림 표현하기는 어르신들이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색깔과 그림을 나타내는데, 완성된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의 성향이나 현재 느끼고 있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을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지연 사무국장은 “노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르신들과 마지막 남은 여생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참으로 가치있고 소중하며 보람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막상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지치는 일이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더욱 벅거워졌다”면서 “그래서 더욱 자기관리가 필요하며, 어르신들께 머리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고, 가슴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미에덴요양원을 돌아보면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구성은 물론 곳곳에 붙어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활동 모습들과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몸을 맡겨 밝은



기운에 젖어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양 국장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족들의 방문이 많아 요양원의 청결은 기본”이라면서 “요양원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미에덴요양원은 정원 30명을 늘리는 증축공사와 산책로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명자 명예기자>

제주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전국 1위'

5개 분야 평가지표 모두 '가' 등급...전국 유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분야 모두 '가' 등급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저출산부문 공통사업 목표달성도 ▲고령화부문 공통사업 목표달성도 ▲자체사업 발굴실적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총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5개 분야 평가지표 중 저출산부문 공통사업 목표달성도, 고령화부문 공통사업 목표달성도,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이번 1위는 2007년 저출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1위,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지난 6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중앙운동본부 출범시 지역 현장 우수사례 소개 등에 이은 또 한번의 쾌거다.

제주도는 내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국정 4대 중점 과제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선정, 다양한 시책 발굴, 릴레이 캠페인·결의대회 개최 등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道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효과

복지수요 확대...한시생계비신청을 전국 평균 갑절 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려운 이웃 찾아나서는 이동상담실'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지만 복지제도와 절차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7~8월 오일시장, 경로당, 임대아파트, 무료급식소 등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263회에 걸쳐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제주도는 이 기간 1만 4685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제

도,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능력자 창업자금 융자지원,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 상담을 벌였다.

이 중 424명은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시생계비 신청서를 접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한시생계비 신청율이 전국 하위권이었으나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가정과 빈곤층의 복지수요가 확대돼 8월 이후 한시생계비 신청율이 전국 평균 4.7%의 갑절을 넘는 10.5%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이 9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시행된 2009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전국 시·도에 설치된 19개의 거점기관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24개의 소규모기관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크게 조직, 인력, 서비스(사례관리),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의 4개 영역으로, ▲예산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포함한 재정관리와 문서관리, 시설·안전부문 ▲상담원과 임상심리전문인력 등 인력확보와 인적자원 역량개발부문 ▲아동

학대 사례관리의 적절성 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의 11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지표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재정립 및 향후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이뤄졌다.

현장평가 결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사례관리)영역에서 만점을 받았고,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영역에서 전국 기관 대비 최고 점수를 획득해 전국 44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오는 8~9일 개최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대회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 포상이 있을 예정이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그는 숨이 멎도록 페달을 밟는다

등산·마라톤즐기는 만능 스포츠맨 송창용씨 20년전 시력 잃고 절망...텐덤사이클 타며 새 삶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시력을 잃고 난 후 절망속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시각장애 1급 송창용씨(53)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담당 코치의 지도 아래 텐덤사이클 페달을 밟으며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텐덤사이클은 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비장애인과의 시각장애인이 함께 타는 2인승 사이클이다. 앞좌석에는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전수가 방향을 조절하고,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전수가 탑승해 함께 페달을 밟는 종목이다.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그는 29세에 갑자기 녹내장이 발병, 33세에 두 눈을 완전히 잃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부와 관련 복지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다 5년 전 시각

장애 1급인 아내를 만나 현재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전맹이지만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는 평소 등산과 마라톤 등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둘이 하나되어 텐덤사이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9월 1~2일 열린 제1회 전국 황성한우배 장애인텐덤사이클 대회에서 도로 12km 1위, 트랙 2km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서 6월에 열린 ‘2009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및 생활체육어울림자전거대회’ 도로 4km에서는 2위를, 7월에 열린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자전거대회’에서는 도로 2.5km에서 당당히 1위

를 거머쥐었다. 또 지난달 전라남도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트랙 2k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모두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들이다.

그는 “가끔은 훈련이 힘이 들어요,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며 극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텐덤사이클을 탈때면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마음이 후련해져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타고 싶다”고 말했다.

송창용씨 담당코치인 김형균

씨(시각장애인복지관)는 “그는 평소 승부욕이 강하고 훈련을 받을 때 실전경기를 치르는 것 같이 연습에 임해 동료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며 “그런 그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비장애인들에게 외면을 받아 장애인들만 즐기는 대회가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정선 명예기자〉



초등학생 방문학습 서비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교육환경이 어려운 위탁가정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생 20세대 2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의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방문학습(일대일 교육)으로 아동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 아동과 양육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6월에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되며, 제주시교육청의 후원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이 아동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완공 유진재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시설장 최은미)는 2009 취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정비사업을 8월 31일 완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고 시설 내 천장단열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실내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부서 보안계, 노인시설서봉사

제주서부경찰서 보안계 직원들은 9월 9일 아노제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찾아 쌀과 라면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실 겸 면회실의 집기 등을 정리하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소/식/마/당

가롤로의집, 절물오름 등반



가롤로의집은 지난 8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선도분과 동부지구 자원봉사팀과 함께 절물오름을 등반했다.

가롤로의집 생활인들은 자원봉사자와 손을 잡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걸으면서 산림욕을 즐기는 등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했다.

도노인복지회관, 뷰티고서 '이미용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9월 4일 산화결연을 맺은 한국뷰티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받는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이미용서비스에선 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이 귀덕2리경로당 어르신 30명에게 열굴마사지·발마사지·머리염색·컷트·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신의사람들,사랑의집서 작은음악회



당신의사람들(리더 우종훈)은 9월 12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을 찾아 생활인들과 직원들이 노래로 하나 되는 '작은음악회'를 펼쳤다.

당신의사람들은 거리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이나 시설·단체에 후원을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룹이다.

한라대사회서비스센터, 노인프로그램 제공



제주한라대학 부설 사회서비스센터(센터장 홍연숙)는 지난 8월부터 매주 'Grace Silver 청년사업단'을 평간주간보호센터 및 평안단지보호센터(센터장 오은숙)에 파견,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농협제주본부, 추석맞이 사랑담은쌀기탁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9월 17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추석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쌀 10kg 800포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에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지원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18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억여원을 기탁하며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슬로건인 '고미운농협, 꼭 필요한농협'을 실천하고 있다.

또 2006년에 발족한 제주농협인아름다운기부문화운동본부는 저소득 학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억여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실천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장애인 수익모델 '감귤정과' 눈길

감귤 영양 100%...소비자 반응 뜨거워 관광기념품공모전서 창작부문 최고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시설장 양광호)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감귤정과 <사진>'가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감귤정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장애인직업재활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지난해부터 지적장애인 등을 고용, 감귤을 설탕(올리고당)과 함께 조리해서 만든 전통다식인 '감귤정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감귤의 영양을 100%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감귤정과'는 비타민C가 과육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껍질까지 섭취할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는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발암유전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 감귤의 노란색을 띠게 해주는 플라보노이드에 함유된 '비타민P'는 비만억제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는 창작부문 최고상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승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처음 생산할 당시에는 상품화에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구정



명절 때 상품 전량이 판매돼 이후에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감귤정과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연중 생산·판매 체제를 위해 냉동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냉동시설을 완비했다.

고 국장은 "수익금은 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 작업하느라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기대 이상의 결실을 거둬 벌써 올 겨울이 기다려진다"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7000원, 1만원, 2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제작돼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상온에서 2개월, 냉동상태에서는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해동 후에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문의=064-702-7851~2.

<조순옥 명예기자>

제주정착 새터민 '사랑나눔 봉사회' 결성

제주에 정착한 지 5년이 넘는 새터민(탈북자)들이 봉사회를 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터민 11명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봉사회(회장 강성남)는 9월 10일 아라중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의 도움으로 발대식을 갖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들은 제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터민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봉사 등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고 있다.

특히 사회적응을 잘 못하는 새터민을 찾아가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있다.

강 회장은 "새터민들은 제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낯설고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며 "동향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헤아리고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 역시 2004년 제주에 처음 정착할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교회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두승 관장은 "새터민들이 수혜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함께 참여토록 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터민 봉사회원들은 앞으로 양로원 및 요양원 등에서 소외계층을 보듬는 운영에도 함께 한다.

중증장애인 위한 '편의시설지도' 제작

지체장애이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지체장애이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센터장 부형중)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지도'를 제작, 배포한다.

전국 최초로 제작되는 '장애인편의시설지도'는 장애인이 관람 가능한 관광지 및 숙박·요식업체 등 관광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해 제주도내·외 중증장애인이 관광시 이동과 접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지체장애이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는 편의시설지도를 통해 그동안 관광문화에서 소외됐던 중증장애인들이 관광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가의집 추석상차리기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집은 9월 19일 추석을 앞두고 생활인들에게 추석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추석 차례상을 차려 보는 '추석상차리기' 활동을 했다.

생활인들은 송편을 비롯해 호박전, 소고기·돼지고기 적, 삼색전, 옥돔구이 등을 한국마사회 목장사업처 봉사자, 교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제주중합사회복지관 가족문화조성사업시행기관에

동제주중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이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가족문화조성사업 공모전에서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웃사촌 한가족'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웃사촌 한가족 사업은 '다문화가족 멘토링', '다문화가족 캠프', '이웃사촌 한마음축제'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정착 및 가족관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일배울터 '혼저옵서 탐라島!'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금상'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주최한 제4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에서 일배울터의 '혼저옵서 탐라島!' <사진>가 금상을 수상했다.



또 김영훈(지적장애 2급)씨, 김양희(지적장애 1급)씨, 김현구(지적장애 1급)씨 등 3명은 '우리'라는 작품으로 입선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높이고 통합활동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도예활동을 사회자변에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조손가정 가족캠프, 시원한 여름나기'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 협회(회장 고두승)가 주최하고 도내 9개 사회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조손가정 가족캠프, 시원한 여름나기'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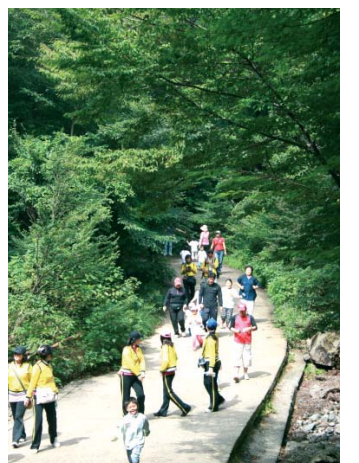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일출랜드에서 티셔츠 제작 및 관람, 비지리청소년수련원에서 레크리에이션 등

을 즐겼다. 또 해녀박물관 방문과 (주)씨월드가 제공한 유람선 관광도 했다.

장애·비장애아동 '함께 숲길을 걸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은 9월 12일 장애·비장애아동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자라는 아이들, 함께 숲길을 걸어요'를 주제로 '장애·비장애 가족나들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지역에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아보육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재미있는 놀이까지 할 수 있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람개비 날리기와 즉석 가족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김우남 의원 사회복지시설위원

김우남 국회의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 황성하 지사장 외 직원들은 추석을 맞아 9월 27일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이사장 전내영)을 방문했다. 김우남 의원 일행은 제주시립희망원(원장 박정해)과 제주정신요양원(원장 전내영)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과 생활인들에게 생활가전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칼럼

시공 초월해 재현되는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빌 게이츠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으로 또한 유명하다. 빌 게이츠는 아내와 함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빈곤국에 대한 질병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공식 은퇴하기도 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3년 전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90%에 달하는 370억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워렌 버핏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했다.

불황속 '나눔 쌀만섬 쌀'기' 성황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부천사가 수없이 많다. '보람있는 일에 써

달라'며 행상 등으로 평생 모은 5억원을 대학에 맡긴 80대 할머니, '장학금으로 사용하다'며 과일상자에 2억원을 담아 행정기관에 보낸 '얼굴 없는 천사',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화북동에 쌀을 보내는 익명의 독지가... 이 분들 모두 우리 사회에 '나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천사들이다.

200여년전 제주에서도 나눔을 몸소 실천한 여성이 있었다. 제주 여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의녀(義女) 김만덕이다.

객주를 차려 막대한 부를 쌓은 김만덕은 1790년부터 5년간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곡식을 구입해 굶주림에 허덕이던 많은 제주도민을 죽음에서 구해냈다. 이런 김만덕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졌고, 당시 임금이었다던 정조는 김만덕을 궁궐로 불러들여 노고를 치하하고 내의원의 '의녀반수(醫女班首)' 벼슬을 내렸다.

좌의정 체제공은 김만덕의 뜻을 기려 '만덕전'이라는 전기를 남겼으며, 김만덕 사후에 제주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의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서 김만덕의 일가에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

사에서 의녀 김만덕을 소개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김만덕 전기문(傳記文)이 실려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한다니 제주 여성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만덕 정신이은 여성 출현 기대

최근 필자는 언론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의녀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나눔 쌀만섬 쌀기'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삼성, KT,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해외는 물론 ARS(060-700-1119)를 통한 시민들의 소액기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만덕 나눔 쌀만섬 쌀기 조직위원회는 당초 모집 목표인 1만섬의 2배인 2만섬으로 늘려 잡았다고 한다. 200년이 지난 후세에 다시 김만덕의 정신이 공간을 초월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 의녀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시론

지역사회서비스의 길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장

전통적 사회복지는 사회부조와 자선사업, 인보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복지의 사회보장과 사회사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계획을 총망라하는 통합 복지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복지의 영역을 규정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나 시설운영, 지원목적 사업들이 열거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영역은 시대환경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광범위해진다. 사회복지란 어쩌면 인간의 복잡다단한 삶의 여정에 수반되는 일상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현대의 사회복지의 종래 물질적 구호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다양한 대인적 전문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체감복지실현 노력 필요

현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가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즉, 복지수급자들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을 매개로 하여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관학(官學)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대학졸업자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들은 다시 전국기구의 평균소득 100% 이하인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건강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154명의 미취업 청년과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이 사업엔 예산 15억여원이 투입되어 문화예술멘토링사업 등에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청년사업단 등 8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월 2300여 명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이용권이다. 바우처 비용은 국가지원과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개인의 서비스선택권이 강화되고 복지수요창출로 공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급자간 경쟁력이 제고된다. 아울러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보장된다. 이 서비스는 2009년 2월부터 26억여원을 투자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연 3만7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자본투자와 노동으로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적 경제활동과는 다르다. 하지만, 피동적이고 구휼에 안주하던 전통적 복지사업에 비하면 가일층 진일보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체감복지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기고

설레는 복지나들이



한 미 옥

제주산업정보대학 청년사업단 강사

한사람으로 인해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뀌는 이야기는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 전율로 다가온다.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사람'이다. 헬렌 켈러의 삶 속에 설리번 선생님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에디슨의 삶 속에 어머니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7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복지 알리미' 사업은 내게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어 사고의 전환까지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첫 발을 디뎠다.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총 4회기의 수업은 체험이 포함되는 역동적인 시간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대상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장애체함을 한 어린이들이 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에 대해 앞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인체험을 한 어린이들이 누구나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회복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다양함 속의 특별함, 혹은 특별함 속의 평범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

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희망을 가져 본다면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에디슨 어머니의 역할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수 있기를 욕심내 본다.

첫 수업을 끝내고 와서 평가를 하며, 아이들의 반응에 제대로 호응해 주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았다. 교육할 내용에만 집중해 아이들의 시선을 일일이 맞추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큰 부담감과 실망감을 전해 주지는 않았을까? 라는 자책감이 더 많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반성의 시간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미약하나마 복지 알리미 초등복지 교육강사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복지 알리미 초등복지 교육강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세를 낮춰 눈높이를 같이하는 성숙함을 체득하고 싶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반응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나들이를 준비한다.

2009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개(프레젠테이션)심사

도노인보호전문기관 '최우수상'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사회복지미래연구회(회장 정석왕)는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월 18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09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개(프레젠테이션)심사를 개최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 사회복지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프로그램이 경합을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빛누리실버연극단을 통한 어르신 문화욕구 해소 및 홍보활동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본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009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개(프레젠테이션)심사를 마친 후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심사위원, 참가팀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극 통해 ‘노인학대예방 메시지’ 전달”

빛누리실버연극단을 통한 어르신 문화욕구 해소 및 홍보활동사업

▲필요성=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0.7%를 기록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특히 ‘노인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모두가 효과적으로 노인학대를 인식하고 노인학대예방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홍보매체의 발굴이 필요하며, ‘연극’은 학대상황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대상자에게 간접경험을 통한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매체라 할 수 있다.

▲목적 및 목표=연극공연을 실시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의식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문화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빛누리실버연극단’을 구성하고 노인학대를 주제로 한 연극을 제작한다. 찾아가는 정기공연을 벌이고, 특별공연도 갖는다. 연극공연을 촬영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자료로 활용한다.

▲단원 만족도·자존감 조사=만족도 조사결과 전조사 평균 29.9점, 후조사 평균 51.8점을 보여 연극단원의 만족도가 평균점수 기준 73.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인 70%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치로 목표가 성공적으로 성취됨을 보여준다.

자존감 조사결과 전조사 평균 171.5점, 후조사 평균 183.6점을 얻어 연극단원의 자존감이 7.0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들은 교직 은퇴 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로서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편에



속하며, 항상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연극참여 활동 전후검사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향력 및 기여도=노인학대 문제를 일반기정과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엮어 연극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왔다. 또한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가 나서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이끄는 등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인학대 예방의식 고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관 의견=빛누리실버연극단은 ‘연극이라는 문화를 통해 ‘즐거움’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했으며, ‘노인학대예방 메시지 전달’과 ‘노인학대예방 의식 확산’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훌륭히 이뤄냈다. 극의 내용에 있어 모든 관객의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고, 대상기관과 대상자가 ‘노인’에 국한돼 다양성이 부족했지만 열악한 많은 조건들 속에서 생소한 ‘연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성실히 성취했다. 특히 노인 스스로가 같은 세대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나와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줬다.

“참가자 16명 중 6명 재활·취업 성공”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직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산업재해로 신체적 기능 손상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의 잔존능력을 파악하고 개별재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자기탐색 및 심리재활프로그램, 신체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인다. 나아가 다양한 직업관련 경험을 통해 재활의지 고취 및 자신감 회복으로 사회 및 직업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필요성=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그 시점부터 개인에게는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역할과 지위의 변화, 수입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이 초래된다. 이런 변화에 자신을 잘 조정해 변화를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와 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는 산재장애인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일반적인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고 그 특성이 다르므로,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자, 신체장애등급 제1급~14급에 해당되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남성 10명, 여성 6명 등 2회에 걸쳐 총 16명이 참여했다.

▲만족도=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단상담, 이력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컴퓨터 교육이 평균 5점 만점에 5점을 얻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제주에서 처음으로 산재근로자사회적응프로그램이 시행돼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심리상태를 도모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여 사회활동을 촉진시켰다. 16명 중 5명은 복지관 직업재활 센터를 통해 직업재활에, 1명은 자신감 회복으로 자립취업에 성공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산재요양중인 분들은 사회적응프로그램보다 의료재활프로그램 욕구가 높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홍보를 했지만 대상자 모집이 힘들었다. 이에 프로그램 실시 전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한 대상자 모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직장체험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프로그램 초기 장애 미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비장애인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 구직등록을 하는 등 취업알선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갯간 빈 푸드마켓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기본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 도민들의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기부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기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부식류와 간식류, 식재료, 생활용품 등 무엇이든 기부가 가능하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기부해주신 물품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됩니다. 현금기부도 가능.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업체 및 기부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



신산공원 ●
 문예회관 ●
 ← 시청방면 → 화북방면 →
 제주동부경찰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1층
사랑나눔 푸드마켓

※ 후원금 기부
 농협 301-0024-0336-61 / 제주은행 11-01-035561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문의 | 사랑나눔 푸드마켓 758-1377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702-3783 ~ 4